

■ 첼리스트 요요마와 실크로드 연주 여행 호남예술제 출신 비올리스트 김유영

“동·서양이 빛어내는 앙상블 감동이죠”

합평 출신 비올리스트 김유영(27)씨는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스페셜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오프닝 콘서트를 잊지 못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 한 이번 공연은 후진타오 주석과 배우 청룡을 비롯한 1만여명이 관람했고 공연 실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은 여러나라 전통 음악가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죠.” 다섯살 때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한 김 씨는 용봉초등학교 1학년 때 호남예술제에 참가했으며 서울대 재학생이던 2000년 도미, 커티스 음악학교(학사), 줄리어드 음대(석사)를 졸업하고 예일대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카네기홀 등서 8차례 연주회도

(주)푸림 김여석 사장의 외동딸인 김 씨는 내년 1월 10일 삼성그룹 초청으로 리움 미술관에서 독주회를 열어 2월에는 뉴욕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예일 스톱과 듀오콘서트를 갖는다. 또 다음달 뉴욕 드와이트 스톱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설과 함께 연주를 들려주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상하이 장애인 오륜 오픈 공연

요요마가 1998년 시작한 ‘실크로드 앙상블’은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에서 극동 지역까지 방문하며 지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주 여행으로 클래식 악기와 각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홍콩·중국 투어를 마쳤고, 내년 4월에는 일본에서 연주회가 열린다.

박화성 다시 읽는다

〈목포 출신 여류 소설가〉

27일 목포문화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개최  
11 연구자 야마다 요시코 교수 등 대거 참가

목포 출신 여류 소설가로 근대 신여성의 삶을 보여줬던 고(故) 박화성(1904~1988·사진)씨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박화성연구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서정자 초당대 부총장)는 목포문화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오후 1시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박화성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박씨는 전남 천송준씨가 문화평론가이고 차남 승세씨는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맏며느리 이규희씨는 1963년 동아일보 장편 공모에서 각각 등단한 소설가이며, 3남 승걸씨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로 ‘문인가족’을 이룬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포대 교수가 ‘박화성의 시대-목포의 풍경’을 주제로,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박화성을 통해 보는 여성, 그리고 근대’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지난 2004년 박화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박화성문화대전’(전 20권·푸른사상)을 펴낸 서정자 위원장은 “연구회 창립을 계기로 이룬 탐구는 물론, 지역의 현장 증언과 자료 탐색을 진행해 박화성 문학을 연구하고 책으로도 그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김은실 작 ‘한 LED’

전통 한지와 LED의 만남

전통 소재인 ‘한지와 LED의 만남’을 주제로 제작된 작품으로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인 ‘남도디자인 자산 100선’에서 선보이고 있다. 한지에 LED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 빛이 배어나오도록 함으로써 은은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 전통 한지의 질감을 살려 전통적인 자연스러움을 형상화했다.



이 작품은 조명재료인 LED를 디자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영화교수 도쿄 프라임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25일 동경 후쓰노모리 극장

피아니스트 서영화(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사진)씨가 도쿄 프라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서씨는 25일 동경 후쓰노모리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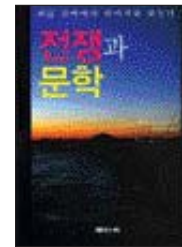


도쿄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술감독 백홍승)는 세계적인 플루트 회사 산코 프라미 등이 후원하고 있는 민간 교향악단으로 지난 1989년 창

단 후 160여 차례의 연주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조선대 음악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 연구교수를 역임한 서씨는 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부 부회장, 조선대 피아노 동문그룹인 ‘선클러비어’ 회장을 맡고 있다.

11 고바야시 삶·문학 조명 ‘전쟁과 문학’ 출간

일제의 침략전쟁에 온 몸을 던져 저항했던 프롤레타리아문화의 대표 소설가 고바야시 다키지(1903~1933)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할 비평서가 출간됐다. 아키타현의 농가에서 태어난 고바야시는 일본의 대륙 침략이 한창이던 1929년 계급이 공산에서 흑사당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대표작 ‘개 가공선(蟹工船)’을 출간하고,



지하 활동 중 체포돼 고문으로 옥사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출간된 ‘전쟁과 문학’(제이앤씨)은 고바야시 탄생 100주년·사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즈 도시히코 요코야마 시립대학 명예교수가 쓴

것이다. 번역은 김정국(국제관광경영교수) 전남과학대 일본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저자는 ‘청년 다키지의 방황과 발견’을 통해 고바야시의 생을 조명하고 그의 체질이 작품에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돼 있는지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9·11’ 또는 이라크 전쟁 등 현대의 폭력으로 본 고바야시 읽기를 시도한다.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featuring various movie listings, showtimes, and promotional text. Includes section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ia Cinema, Seniors Cinema, and others.